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하신지요? 저희는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매일 40도를 웃도는 더위에 지난 몇 주 동안 좀 힘들었는데, 이번주 부터는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낮 기온도 33도 안팎 이어서 이제는 좀 견딜 만합니다.

7월 서준우 정스나 선교사 선교편지 보내 드립니다.

1. 각 교회 들 소식

고체델체브, 사토브챠, 쩨네비 교회 모두 다 평안합니다. 쩨네비 교회 예배당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다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쩨네비 교회 식구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꾸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 외벽에 교패만 달면 건축 관련 대략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쩨네비 교회에는 꾸준히 새로운 분들이 와서 회심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주님의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사토브챠 교회 식구들 중 많은 인원이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등 각지로 흩어졌다가 차츰 식구들이 다시 불가리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의 믿음생활을 위해 (해외에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서준우 선교사 설교 영상을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했던 것과 같이 몇몇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볼 수가 없고 나태해지고 이런저런 문제들도 생겨서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재 점검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 8월3일 사토브챠 교회에서, 8월10일 쩨네비 교회에서 "믿음의 기초와 성도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충전 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식사 교제도 하면서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 성경 공부, 독일어 공부, 개인적인 만남들

독일로 일하러 가기 전까지 꾸준히 성경공부를 같이 했던 살리가 돌아와서 다시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리가 독일로 가 있는 동안 그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스나 선교사가 진행하는 독일어 수업은 학생들이 다들 뿔뿔이 흩어져 (외국으로 일하러 가느라) 이제 코스타딘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한 개인 교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석하고 계시고 종종 꿀, 수박 등 이런저런 선물을 주셔서 정스나 선교사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권면하여 독일어 수업 후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처음 한번 하셨습니다. 정스나 선교사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복음을 통해 코스타딘 할아버지가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준우 선교사는 미로슬랍 이라는 성도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고체델체브 시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친구인데, 예수님을 믿은지 3년이 된 친구입니다. 독일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살았고 고체델체브에 이사 온지 (원래는 바르나 사람(동쪽으로 500키로 떨어진 지역)) 일년이 채 안되어서 믿음의 친구를 찾고 있던 참에 서준우 선교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체델체브에 살면서 홈 오피스로 독일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친구라고 생각이 되어 이런 저런 대화들을 통해 더 관계가 깊어 지길 소망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3. 기타 여러가지 일들

저희 가정은 고체델체브 시내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시는 그르멘에서 차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르멘은 좀 더 시골이고 아무래도 시내에 살아야 새로운 만남들도 생기고 편하게 가정을 열어서 초대하고 교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체델체브도 워낙 작은 도시 (2만명)이다 보니 어디에 살아도 시내 중심에 15분이면 걸어서 도착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새로운 만남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앞으로의 만남들이 기대가 됩니다.

고체델체브 교회를 섬기는 안드레이 전도사, 사토브챠 교회를 섬기는 루멘 전도사, 쩨네비 교회를 섬기는 플라멘 전도사는 기회가 될 때 마다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하고 있고 특별히 루멘 전도사는 매주 수요 기도회 전에 만나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 모두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는 거의 없어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2박 3일 정도 사역자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송 교회인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이 여러가지 사정상 저희 지역까지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소피아에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일정을 진행하여서 주일에 쩨네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소피아로 이동하여 잠깐 청소년들과 만나고 짧지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마냥 어리기만 했던 아이들이 단기 선교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체펠라레 무슬림 지역에는 먼저 서희범, 최순이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4. 선교사 생활

윤, 율은 홈스쿨에 잘 적응하여 이제 영어는 어느정도 적응이 되어서 조금씩 불가리아 알파벳 (키릴 문자) 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불가리아 단어들을 읽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칠전에 저녁 먹고 네 가족이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모여있던 불가리아 청소년들이 "칭챙총" 하면서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나갈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들인데 그 날 따라 좀 지쳤는지 그러면 안된다고 따끔하게 타일렀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그냥 참으셨겠지... 그냥 사랑으로 웃어 주셨겠지...' 생각이 되어 후회가 막

심했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필리핀에서 살면서 종종 들었던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되서 그런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 율이는 그런 상처가 마음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닮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8월3일과 8월10일에 진행되는 사경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서준우 선교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2) 여러가지 만남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의 관계들이 더 깊어지길

3) 체펠라레 지역 및 새로 만나게 되는 무슬림 지역(유메르, 유비에 가족)에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생기길

4) 사역자 수련회 좋은 장소 섭외하고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서로 간의 교제가 깊어 지길

5) 선교사 가정의 영육간에 강건과 불가리아 언어의 진보를 위해

무더운 여름도 곧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보내주시는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서준우, 정스나, 윤, 율 올림